

전북 교육 소식

전북도교육청, 중1, 고1학년

학습코칭 프로그램 추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습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1학년과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5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의욕 증진을 위해 중1학년과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목별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5월 2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로를 설계하지 못하고,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학습에 의욕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심어주고, 진로의 방향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및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각과 4시간씩 구성되어 27일 장수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한다.

먼저 피망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 20~40명 규모로 각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에서 토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신청한 학생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학습유형검사를 실시하고, 진로교사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상담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담당 교사들은 해당 과목 학습법 특강을 실시한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설계하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중등교육과 교사를 중·전공 교과 수업 담당자들로 구성된 40명의 강사를 꾸려 지난 19일 사전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실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6월 모의평가가 6월1일 도내 114개 고교와 6개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평가는 고3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적응력 향상과 난이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

도내에서는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2만1241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모의고사는 오는 11월16일 수능시험과 똑같은 시간 & #8221;방식으로 치러진다. 오전 8시40분부터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진행된다.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www.ebsi.c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성적은 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해 개인별 성적표지와 및 학교 보관용 성적일람표를 제공한다. 학교담당자가 6월21일 오후 3시부터 모의평가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고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107개 고교에서 1학년 1만8007명, 2학년 2만441명이 응시, 수능시험 적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게 된다.

전북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 투명해졌다”

외부강사 943명 대상 자체 온라인 설문, 85.2% 긍정 반응

전북 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943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다.

응답자들은 방과후학교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44.3%가 ‘매우 그렇다’, 40.9%가 ‘그렇다’고 답변해 총 85.2%(803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방과후학교 계약 상의 불리한 규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91.5%가 ‘없다’, 선불, 상품권, 현금 등 급부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9.6%(939명)가 ‘없다’, 계약 외 무보수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915명)가 ‘없다’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 홈페이지 모집 공고(84.8%) 등 공적인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고, 66.5%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도 16%나 되었다.

말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체능 영역(42.8%), 교과 관련 영역(21.3%), 기타(12.8%), 컴퓨터 영역(12.4%), 외국어 영역(10.6%) 순이며, 제도 개선 을 묻는 질문에는 (2가지 선택) ▲강사 선별 36.4% ▲강사로 지급 31.3% ▲부당한 업무 지시 7.7% ▲없다 61.9%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청렴

대안특성화고 차질없는 추진을 전북도교육청, 개교 지원 T/F팀 가동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대안특성화고(고산고)를 지원하는 데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다. 통합형 대안특성화고등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T/F팀은 월1회 정례회의를 통해 개교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합형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교원 수급대책,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보통교과와 특성화교과의 비율을 50:50을 전제로 교육과정안을 마련 중이며 교사의 신속과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 신속은 올해 8월 착공예이머 리모델링 공사는 여름방학 때 완료된다.

T/F팀은 이슬람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이 팀장을 맡았으며 전북교육청 장학사와 사무관, 완주교육지원청, 고산고 교장과 교감, 이혜숙 도의원, 고산고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2016년 7월 4일 고산고를 대안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 고시했으며 같은 해 9월 정경덕 내부형 공모교장이 부임한 대안특성화 학교 11곳을 방문해 다양한 운영 사례를 모으았다. 또 10월에는 학교안전총괄위원회를 구성해 노상우 전북대학교 수, 박승태 전주고교 교수, 김성태 정읍 동화중 교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태지역 4개국,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지지 약속

김종규 부안군수, 태국·방글라데시·네팔·부탄 해외출장 성과 이끌어

태국과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등 아태지역 4개국 이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지지를 약속했다.

부안군은 김종규 군수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 전북도연맹 등이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등 아태지역 4개국 해외출장을 진행한 결과 4개국 모두 부안 새만금 유치 지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출장에서는 4개국 스카우트연맹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현지 대사관을 방문해 유치 협조를 요청했다.

출장결과 엠 엠 파나나 디스쿨 태국 교육부 차관과 모자벨 하루 칸 방글라데시 행정부 차관, 라빈 다할

네팔스카우트연맹 치프 스카우트, 카르마에에 부탄 교육부 차관 등 현지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이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지지를 약속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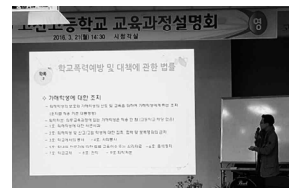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부안 새만금의 경우 기네스북에 등재된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 안쪽의 401km의 광활한 부지로서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에 이르며 주위에 산, 갯벌, 바다, 강, 들, 하천, 계곡, 광야 등 대자연은 활용한 다양한 과점종류 구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중점 홍보했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으로 확정되면 신보일 스마트 잼버리는 모바일 앱을 사용해 5G 기반의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들과 함께 잼버리를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가상현실 체험도 가능해 경쟁력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으로 유치되면 참가자들인 청소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자와 참가자들 간 상호협력의 소통행사가 될 것”이라며 “불과 10여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한 기적의 땅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준비와 편익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청소년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창군 전통장 문화학교 건립 추진, 건립 예산 10억 원

순창군이 전통장 문화학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통장문화학교가 경기도 성남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20일 성남시 도촌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60여명이 순창을 방문해 기능인들이 직접 담은 장이짜로 집밥을 먹고, 순창교차장, 원장, 간장 담은 체험을 1박 2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장문화학교는 성남시가 친환경급식 확대를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장 담은 밥을 체험하고 우리 선조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에 담은 장은 학교급식으로 사용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운영하던 전통장문화학교의 전국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전통장문화학교는 순창군이 대를 이어 장을 담고 있는 순창의 기능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농업인 등 시에서 대안 가치와 농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능인들과 장을 담고, 친환경농산물 상추파기, 두부만들기, 발효기와 순창의 다양한 산업자원과 농촌관광자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Advertisement for 'Smart Library' (스마트 체험도서관) featuring a child reading and various educational resources. Text includes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리/학/삼 스마트 체험도서관',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hwa Tech.